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10개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f the Major Developing Countries: Focused on 10 Asian and African Countries

김 정 현 (Jeong-Hyen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
| 2.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현황 및 목록 특성 분석 |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분석 |
| | 4.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1%도 되지 않는다.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3,000권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관련 자료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5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테와 구분하고 있지만 4개 국가도서관에서는 태권도를 가라테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7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related to Korea shown in the cataloging record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main 10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Korea-related records in most national libraries are very poor and under 0.1% of the library. Except for National Library of Viet Nam, the figure is under 3,000 volumes and generally 2 times less than Japan related records. Second, except for National Library of Iran and Viet Nam most national libraries romanize Korean materials, there are not marked with the original Korean language and unfeasible Hangeul search. Third, on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distribution in sub criteria of Korea-related records, subject related to history and economy is largely shown in the highest rate. Fifth, among the Korea-related subject heading, Taekwondo is marked with distinction from Karate in most libraries except for 7 national libraries. Dokdo is marked with the geographical name of 'Korea' in 7 national libraries and East Sea (Donghae) already is marked with 'Japan, Sea of' in 7 national libraries. Amnokgang, Dumangang, and Baekdusan-related records did not search at all in most national libraries.

키워드: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 국가도서관, 한국주제명, 주제명표목표 아시아지역도서관, 아프리카지역도서관
Developing Country National Library, National Library, Korean Subject Heading, Subject Headings,
Asian Libraries, African Libraries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2534).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jnu.ac.kr)

논문접수일자: 2018년 1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2월 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65-86,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065]

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국가도서관의 역할은 해당 국가의 전통과 현실적 상황 즉, 정치, 경제, 지역 및 문화적 상황 등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국내외 지식정보의 망라적인 수집, 보존 등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을 근간으로 해당 국가의 범국가적 학술연구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지만 무질서하고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가운데서도 가장 학술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는 국가도서관의 소장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이들 국가도서관의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하게 됨으로, 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한국 관련 레코드가 많을수록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기회가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도서관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정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동안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부 선진국이나 영어권 중심의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유대관계를 생각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에서도 그동안 간과되었던 개발도상국 지역으로 연구영역

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 연구와 관련하여 유럽 및 남미지역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특성 및 주제명이 올바르게 조직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OPAC)을 통해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은 편의상 개발도상국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G20을 비롯하여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교적 OPAC 접속이 용이한 10개국의 국가도서관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10개 국가도서관은 아시아지역의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국가도서관, 아프리카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튀니지 국가도서관이다. 이들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이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10개 국가도서관에 대한 자료현황과 목록 특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각 국가도서관의 OPAC을 직접 조사하여 도서관별로 한국관련 레코드를 주제별로 구분한 다음, 대략적인 레코드 수, 주제별 분포,

그리고 도서관간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태권도'나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의 용어와 같이 각국의 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또한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주제명의 표기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란 본문이 한국어이거나 주제가 한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저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에서 발행된 자료도 한국관련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도서관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한국인 저자와 발행지를 모두 조사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제외한다. 그리고 주제가 한국에 관한 것은 'Taekwondo'(태권도)나 'P'ansori'(판소리)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일부 키워드(대부분 로마자로 표기됨)를 제외하고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에 상응하는 각국의 언어)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레코드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관련 목록레코드가 대부분 포함되므로 주제명의 특성이나 대략적인 레코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선행연구

해외 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나 주제명표목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김영귀(1997), 윤정옥(2001), Kim(1989), 김정현과 문지현(2009), 김정현(2010)은 미국의 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인 LCSH를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정현(2013)은 주요 국가 주제명표목표의 한국 국경

관련 주제명, 문지현과 김정현(2011a; 2011b) 및 문지현(2012)은 중국과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있어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에서는 주요 국가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정연경(2010)은 정보 접근점으로 LC 주제명 표목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의 연구는 주로 LCSH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 들어 문지현과 김정현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WorldCat에 수록된 한국관련 레코드의 특성을 분석한 윤정옥(2012; 2013), 주요 선진 국가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김정현(2011), 해외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2014; 2015), 유럽 및 남미지역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현황 및 목록 특성 분석

2.1 국가도서관의 자료 현황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현황은 목록레코드의 규모 즉, 자료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해당 국가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직접 탐색하여 조사하였으며, 자료 수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해당 국가 도서관 홈페이지의 OPAC에서 주제명이나 키워드 가운데 'Korea'와 'Korean', 'Japan'과 'Japanese'가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합산하였으며, 주제명에 이들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Taekwondo'나 'P'ansori'와 같이 한국 관련 주제명이 뚜렷한 것은 가능한 포함시켰다. 물론 이들 용어는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탐색하였다.

〈표 1〉은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 수와 한국관련 자료,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관련 자료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규모는 베트남 국가도서관이 0.29%, 필리핀 국가도서관 0.1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규모는 베트남 국가도서관이 7,312건

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이 2,622건으로 나타난 반면, 스리랑카와 튀니지 국가도서관은 5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 국가도서관의 경우 한국관련 자료가 일본보다 2,000여 건 높게 나타났다.

2.2 국가도서관의 OPAC 구조

각국의 국가도서관 홈페이지는 〈표 2〉와 같이 공용어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언어로 나타내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국가도서관의 OPAC으로 접근하면 OPAC을 나타내는 설명어와 엔트리가 홈페이지 언어와 일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홈페이지와 OPAC 설명어는 대체로 영어로 나타내거나 영어와 자국어어를 병행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언어별로 검색을 구분하지 않거나 일부 언어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1〉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자료 현황

국가도서관	구분	자료 수(건)	한국관련 자료		일본관련 자료	
			자료 수	백분율	자료 수	백분율
인도		264만	2,079	0.08	6,301	0.24
인도네시아		149만	1,170	0.08	3,871	0.26
스리랑카		50만	414	0.08	740	0.15
이란		1,500만	2,537	0.02	5,273	0.04
베트남		250만	7,312	0.29	5,328	0.21
필리핀		167만	2,067	0.12	2,330	0.14
말레이시아		478만	2,622	0.05	6,489	0.14
태국		455만	1,660	0.04	3,220	0.07
남아공		550만	788	0.01	2,623	0.05
튀니지		100만	472	0.05	1,190	0.12

*2017년 10월 5일 기준임

〈표 2〉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사용 언어

국가도서관	구분	공용어	홈페이지 설명어	OPAC 설명어	언어별 검색 구분
인도		힌디어, 영어	영어	영어	구분하지 않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포함 13개 언어
스리랑카		신할라어, 타밀어	영어	영어	영어, 타밀어
이란		페르시아어	페르시아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영어	구분하지 않음
베트남		베트남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영어	베트남어	구분하지 않음
필리핀		필리핀어, 영어	영어	영어	구분하지 않음
말레이시아		말레이어	말레이어, 영어	영어	언어별 구분
태국		태국어	태국어, 영어	태국어, 영어	태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남아공		영어 등 11개 언어	영어	영어	영어 포함 13개 언어
튀니지		아랍어	프랑스어, 아랍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함 20개 언어

*2017년 10월 5일 기준임

각국의 국가도서관 OPAC 구조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도 국가도서관의 OPAC을 예시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1〉은 인도 국가도서관 OPAC의 초기 검색화면에서, 기본검색인 ‘Quick Search’와 확장검색인 ‘Advanced Search’ 가운데 확장검색을 선택하여 나타난 입력화면이다. 대부분의 도서

관이 이러한 2가지 메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매뉴용어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Advanced Search’를 선택한 다음 커서를 이동하면 ‘Anywhere’(전체), ‘Title’(표제), ‘Author’(저자), ‘Subject’(주제명) 등의 선택 요소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Anywhere’를 선택

〈그림 1〉 인도 국가도서관의 OPAC: 초기 검색화면

택한 후, 'Korea' 또는 'Korean'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려는 화면이다. 대부분의 국가 도서관 OPAC에서 이와 같은 확장검색을 통해 저자, 표제, 주제명, 키워드, 발행처 등이 검색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이외에도 분류기호나 자관의 제어번호, 통일표제, ISBN, ISSN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주제명은 일반 주제명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일반 주제명과 함께 자관에서 통제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3.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분석

3.1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현황

해당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을 <표 3>과 같이 철학·종교, 사회과학, 과학·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여기서 세부항목은 LCSH에서 추출한 한국관련 주제명을 유사한 주제끼리 군집화한 것이다(김정현 2011, 146). 이러한 주제명은 다시 주제세목, 지리세목, 시대세목, 형식세목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항목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제적인 주제명이다. 각 국가도서관의 주제명은 언어에 따라 표기방식이 다르며, 동일한 언어라도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서 주제명이 적용되고 있다.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는 확장검색에서 주제명이나 키워드 등으로 검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불리언 연산자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국관련 레코드의 구체적인 주제별 분포 현황과 해당 주제명의 레코드 수는 <표 4>와 같다. 각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은 <표 3>에 제시한 세부항목이 결합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각 국가도서관의 언어 구조에 따라 동일한 주제명이라도 한국을 나타내는 지리세목이 주제명 첫 머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김치나 태권도와 같은 특정 주제명을 제외

<표 3>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구분

주제영역	세부항목
철학·종교	① 철학, 윤리, 유학, ②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③ 종교, 신학, 기독교, 불교
사회과학	① 사회일반, 언론, 인구, ② 경제, 무역, 산업, ③ 문화, 유적지, ④ 정치, 통일문제, 핵문제, 군사분계선, ⑤ 외교, 국제관계, ⑥ 법률, 인권, ⑦ 교육, ⑧ 국방, ⑨ 한국인, 민족, ⑩ 여성
과학·기술	① 자연과학, ② 기술과학, ③ 의학, 병리학, ④ 농업, 수산업, ⑤ 음식, 요리, 김치
예 술	① 예술일반, ② 음악, ③ 미술, ④ 건축, ⑤ 조각, ⑥ 영화, TV드라마, ⑦ 도자기, ⑧ 태권도, 스포츠, 축구, 2002월드컵
언 어	① 언어
문 학	① 문학일반, ② 시, ③ 소설, ④ 희곡, ⑤ 수필, ⑥ 산문, ⑦ 풍자
역사·지리	① 역사, 전기, ② 한국전쟁, ③ 지리, 지도, 국경, 영토, 산, 강, ④ 여행, 안내

〈표 4〉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

주제영역 국가도서관		철학 종교	사회 과학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기타	합계	한국	남한	북한
인도	주제명수 (%)	22 (3.0)	386 (52.6)	26 (3.5)	95 (13.0)	31 (4.2)	45 (6.1)	129 (15.6)		734 (100%)			
	레코드수 (%)	55 (2.6)	1,126 (54.2)	38 (1.8)	182 (8.7)	53 (2.5)	184 (8.8)	432 (20.8)	9 (0.4)	2,079 (100%)	1,356 (65.2)	459 (22.0)	267 (12.8)
인도네 시아	주제명수 (%)	8 (1.5)	327 (61.2)	23 (4.3)	44 (8.3)	29 (5.4)	26 (4.9)	77 (14.4)		534 (100%)			
	레코드수 (%)	20 (1.7)	668 (57.1)	33 (2.8)	77 (6.6)	128 (10.9)	62 (5.3)	173 (14.8)	9 (0.8)	1,170 (100%)	756 (64.6)	153 (13.1)	261 (22.3)
스리 랑카	주제명수 (%)	6 (4.7)	58 (45.7)	5 (3.9)	20 (15.8)	7 (5.5)	8 (6.3)	23 (18.1)		127 (100%)			
	레코드수 (%)	14 (3.4)	169 (40.8)	10 (2.4)	75 (18.1)	21 (5.1)	38 (9.2)	81 (19.6)	6 (1.4)	414 (100%)	362 (87.4)	27 (6.6)	25 (6.0)
이란	주제명수 (%)	8 (1.9)	226 (54.5)	15 (3.6)	33 (8.0)	19 (4.6)	18 (4.3)	96 (23.1)		415 (100%)			
	레코드수 (%)	18 (0.7)	862 (34.0)	77 (3.0)	140 (5.5)	57 (2.3)	104 (4.1)	1,268 (50.0)	11 (0.4)	2,537 (100%)	776 (30.6)	862 (34.0)	899 (35.4)
베트남	주제명수 (%)	17 (2.0)	425 (49.8)	84 (9.9)	121 (14.2)	55 (6.4)	59 (6.9)	92 (10.8)		853 (100%)			
	레코드수 (%)	161 (2.2)	2,410 (33.0)	297 (4.1)	514 (7.0)	259 (3.5)	2,112 (28.9)	1,549 (21.2)	10 (0.1)	7,312 (100%)	7,004 (95.8)	175 (2.4)	133 (1.8)
필리핀	주제명수 (%)	40 (5.1)	376 (47.6)	30 (3.8)	108 (13.7)	36 (4.5)	64 (8.1)	136 (17.2)		790 (100%)			
	레코드수 (%)	70 (3.4)	903 (43.7)	66 (3.2)	183 (8.9)	84 (4.0)	206 (10.0)	548 (26.5)	7 (0.3)	2,067 (100%)	1,392 (67.4)	470 (22.7)	205 (9.9)
말레이 시아	주제명수 (%)	26 (1.9)	730 (53.9)	91 (6.7)	196 (14.5)	46 (3.4)	137 (10.1)	128 (9.5)		1,354 (100%)			
	레코드수 (%)	40 (1.5)	1,088 (41.5)	134 (5.1)	324 (12.4)	117 (4.5)	601 (22.9)	306 (11.7)	12 (0.4)	2,622 (100%)	1,583 (60.4)	902 (34.4)	137 (5.2)
태국	주제명수 (%)	33 (5.0)	288 (44.0)	18 (2.8)	91 (13.9)	50 (7.7)	33 (5.0)	141 (21.6)		654 (100%)			
	레코드수 (%)	43 (2.6)	575 (34.6)	28 (1.7)	131 (7.9)	213 (12.8)	282 (17.0)	381 (23.0)	7 (0.4)	1,660 (100%)	1,262 (76.0)	276 (16.6)	122 (7.4)
남아공	주제명수 (%)	15 (3.0)	307 (61.5)	43 (8.6)	45 (9.1)	7 (1.4)	16 (3.2)	66 (13.2)		499 (100%)			
	레코드수 (%)	18 (2.3)	518 (65.7)	51 (6.5)	59 (7.5)	13 (1.6)	20 (2.5)	102 (12.9)	7 (0.9)	788 (100%)	483 (61.3)	243 (30.8)	62 (7.9)
튀니지	주제명수 (%)	15 (4.3)	187 (53.3)	8 (2.3)	58 (16.5)	4 (1.1)	8 (2.3)	71 (20.2)		351 (100%)			
	레코드수 (%)	17 (3.6)	251 (53.2)	9 (1.9)	74 (15.7)	4 (0.8)	11 (2.3)	99 (21.0)	7 (1.5)	472 (100%)	343 (72.7)	94 (19.9)	35 (7.4)

*2017년 10월 5일 기준임

하고는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 주제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다. 〈표 4〉에서 특정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 3〉의 세부항목별로 주제명과 레코

드수를 모두 조사하여 구분하였지만 〈표 4〉에서는 주제영역까지만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 남한, 북한관련 레코드도 조사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1.1 인도 국가도서관

인도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ndia)은 1953년에 설립되어 인도의 Kolkat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27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9%인 2,079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28%인 6,301건으로 거의 3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459건, 북한이 267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126건(54.2%), 역사·지리 분야가 432건(20.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38건(1.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정치'가 302건(14.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271건)>역사(241)>사회(19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90건(12.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76)>정치(65)>외교(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4건이며, 주제명은 모두 'Tae kwon do'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Kimchi'라는 키워드로 1건이 검색된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Tok Island (K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Japan, Sea of'로 기술되어 있다. '백두산'관련 레코드는 1건이며, 주제명은 'Paektu Mountain (Korea)'로 기술되어 있다.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Yalu River'로 5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두만강'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2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Perpustaka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은 1980년에 설립되어 인도네시아의 Jakart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49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8%인 1,170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26%인 3,871건으로 3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53건, 북한 261건으로 남한보다 북한 관련 레코드가 더 많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668건(57.1%), 역사·지리 분야가 173건(14.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20건(1.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정치'가 226건(19.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128건)>경제(111)>역사(9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정치가 71건(13.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66)>경제(63)>문화(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로마자

ONLINE PUBLIC ACCESS CATALOG	
Perpustakaan Nasional RI	
Pencarian Sederhana Pencarian Lanjut Pencarian Berbasis MARC 10 Koleksi Sering Dipinjam Tampung	
Jenis Bahan	Monograf
Judul	<u>Chaeso koryoin vi norae ru chajaso = Zabytve pesnio glvnom = Korean folksong in CIS / Chaerok, Pyonjo kim Pyang-hak ; chaebo, Poyon gok Han Yakkobu ; kyehoek, Kamsu Kim Chun-tae</u>
Pengarang	Han, Yakkobu, 1943-; Kim, Pyong-Hak, 1965-; Han, Yakkobu, 1943-
Nomor Panggil	781.620 095 19 CHA

〈그림 2〉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elatan', 북한은 'Korea Utara'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모두 7건이며, 이 가운데 일부 레코드에는 주제명이 'Taekwondo'와 'Taekwon-Do'로 기술되어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7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일부 레코드에는 주제명이 '독도'와 '독도섬'을 의미하는 'Dokdo'와 'Pulau Dokdo', '독도 (한국)'을 의미하는 'Pulau Tok (Korea)'와 'Dokdo (Korea Selatan)'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일반 주제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3 스리랑카 국가도서관

스리랑카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ri Lanka)은 1990년에 설립되어 스리랑카의 Colombo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5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

코드는 전체 자료의 0.08%인 414건인 반면, 일본 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15%인 740건으로 한국의 1.8배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7건, 북한 25건으로 남한과 북한을 거의 구분하고 있지 않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69건(40.8%), 역사·지리 분야가 81건(19.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10건(2.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62건(15.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화(48건)>예술(32)>사회(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사회가 14건(11.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12)>경제(10)>정치(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1건이며, 주제명이 'Karate'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태권도를 가라

데(Karate)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동해’ 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일반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어는 일반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4 이란 국가도서관

이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ran)은 1937년에 설립되어 이란의 Tehran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5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2%인 2,537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04%인 5,273건으로 2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862건, 북한 899건으로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역사·지리 분야의 레코드가 1,268건(50.0%), 사회과학 분야가 862건(3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18건(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118건(44.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201건) > 문화(197) > 사회(148) >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62건(14.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역사(51) > 사회(48) > 정치(36) >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어 원어 표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표제의 경우에 영어로 번역 표기하였

고, 고유명의 경우에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였다. 한글검색이 가능하지만 한국어 입력 자료가 극소수이며, 단어검색이 가능하나 글자검색은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와 ‘کره’, 남한은 ‘Korea (South)’와 ‘کره جنوبي’, 북한은 ‘Korea (North)’와 ‘کره شمالي’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 관련 레코드는 20건이며, 주제명은 모두 ‘Taekwondo’나 ‘تکواندو’(태권도)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관련 레코드는 ‘Kimchi’라는 키워드로 7건이 검색되며, 여기에는 주제명이 ‘Kimchi’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1건 포함되어 있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6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은 <그림 3>에서와 같이 ‘독도(한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제명 ‘جزیره (کره جنوبي)’이 기술되어 있다. ‘동해’ 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دریای ژاپن’로 기술되어 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5 베트남 국가도서관

베트남 국가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은 1917년에 설립되어 베트남의 Hanoi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5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29%인 7,312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21%인 5,328건으로 한국관련 자료가 다소 많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75건, 북한 133건으로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1650230 001
	20090613092123.0 005
	978-89-8341-072-6a\$## 010
	b1 ۶۵۰۲۲۰\$## 020
	a20090301 per 50\$## 100
	0#\$akor\$aeng 101
Historical evidence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b[Book]\$f/ Yi Sang-tae 1#\$a 200	chiũm.\$7ba
, 2007\$d=1386.\$7baaKyönggi-do Paju-si\$c: Kyongsaewon\$d\$## 210	
	255a\$## 215
	انگلیسی- کره ای.
	اھستوریكال.
2nli\$3462024\$ -- ماخذ\$ -- کره جنوبی\$ -- y\$ -- فلامرو ملی\$ -- ۷\$ -- 255a\$## 606	
2nli\$3462023\$ -- زاین\$ -- کره جنوبی\$ -- x\$ -- فلامرو ملی\$ -- ۷\$ -- 255a\$## 606	
2nli\$3462034\$ -- اسناد و مدارک\$ -- تاریخ\$ -- x\$ -- کره جنوبی\$ -- ۷\$ -- 255a\$## 607	
2nli\$3462035\$ -- اسناد و مدارک\$ -- موقعیت بین المللی\$ -- x\$ -- کره جنوبی\$ -- ۷\$ -- 255a\$## 607	
	۹۵۱/۹۵a\$## 676
	DS۹۲۴/۷۴\$ -- ۱۲۸۶a\$## 680
6a01\$3447520\$ -- ۱۹۴۵ -- f\$ -- سانگ-تائه -- b\$ -- 1\$ -- 700	
	#1\$aYi\$b, Sang-tae\$7ba\$6a01 700

〈그림 3〉 이란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410건(33.0%), 문학 분야가 2,112건(28.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161건(2.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1,329건(18.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소설’(1,175건) > 문학일반(893) > 경제(517) >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98건(11.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80) > 문화(72) > 역사(65) >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원어 표기를 하고 있으며, 한글검색이 가능하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Triều Tiên’ 또는 ‘Hàn Quốc’, 남한은 ‘Nam Triều Tiên’, 북한은 ‘Bắc Triều Tiên’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 관련 레코드는 43건이며, 주제명은 대부분 ‘Taekwondo’로 기술되어 있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Dokdo’ 또는 ‘독도’라는 키워드로 41건이 검색되며, 대부분이 ‘독도’를 주제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일부

주제명에 ‘독도섬’을 의미하는 ‘Đảo Dokdo’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한국이라는 지명을 추가하여 ‘Đảo Dokdo (Triều Tiên)’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동해’ 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5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4건의 주제명은 ‘동해’를 의미하는 ‘Biển đông’으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5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은 백두산을 의미하는 ‘Núi Baekdu’로 표시되어 있다. ‘김치’ 관련 레코드는 14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2건은 주제명이 ‘Kim chi’, 2건은 ‘Kimchi’로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6 필리핀 국가도서관

필리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은 1901년에 설립되어 필리핀의 Manil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7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12%인 2,067건인 반면, 일본 관련 레코드는 0.14%인 2,330건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470건, 북한 205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903건(43.7%), 역사·지리 분야가 548건(26.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66건(3.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366건(17.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180건)>경제(175)>사회(1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 경제가 74건(9.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65)>역사(63)>문화(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6건이며, 주제명은 'Tae kwon do'로 2건, 'Karate'로 4건 기술되

어 있어 태권도와 가라테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가라테(Karate) 관련 레코드는 표제 키워드로 32건이지만 주제명으로 45건이 검색되며, 여기에는 <그림 4>와 같이 표제에 '태권도' 관련 키워드만 있는 레코드도 4건이 포함되어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Dokdo'로 20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Tok Island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6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3건은 주제명이 'Japan, Sea of'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5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3건은 주제명이 'Kimchi'로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7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Perpustakaan Negara Malaysia)은 1966년에 설립되어 말레이시아의 Kuala Lumpur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78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5%인 2,622건인 반면

ISBD			
Kim, Bok Man.			
Practical taekwon do : defenses against weapons art of self-defense : a text book for advanced students / Kim Bok Man. -- Hong Kong : Sun Light Pub., c1981. -- 333 p. : ill. ; 24 cm.			
ISBN 971--034-09-2			
ISBN: 9719034092			
Subjects- Topical Terms: Karate. Martial art.			
Division	Section - Shelving Location	Call number	Status
Reference	Asia and Oceania (2nd flr)	Asia 796.8153 K56p 1981 / Asia 796.8153 K56p 1981	On-shelf
MARC View Simple View Print Add to Book Bag			

<그림 4> 필리핀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14%인 6,489건으로 한국보다 2.5배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902건, 북한 137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1,088건(41.5%), 문학 분야가 601건(22.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레코드가 40건(1.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가 308건(11.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문학일반(282건)>사회(198)>소설(1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193건(14.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150)>문화(115)>정치(10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어 자료의 경우, 로마자 번자 표기와 함께 원어인 중국어를 병기하고 있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23건이며, 주제명은 대부분 'Tae kwon do'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표제에 'Taekwon-do'라는 키워드만 있는데도 주제명을 'Karate'로 기술한 것이 4건이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1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Tok Island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Japan, Sea of'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3건이 검색

되며, 이 가운데 1건은 주제명이 'Kimchi'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8 태국 국가도서관

태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ailand)은 1905년에 설립되어 태국의 Bangkok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55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4%인 1,660건인 반면, 일본관련 레코드는 0.07%인 3,220건으로 거의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76건, 북한 122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575건(34.6%), 역사·지리 분야가 381건(23.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레코드가 28건(1.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소설'이 246건(1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언어(213건)>역사(163)>경제(1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역사가 62건(9.5%)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제(61)>사회(58)>문화(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와 'เกาหลี', 남한은 'Korea (South)'와 'เกาหลี (ใต้)', 북한은 'Korea (North)'와 'เกาหลี (เหนือ)'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7건이며, 주제명은 'Tae

kwon do'와 '태권도'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1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대부분 'Tok Island (Korea)'로 표시하고 있으며, 'Tokdo Island (Korea)', 'Dokdo'로 표시한 것도 1건씩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7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Japan, Sea of'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4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은 주제명이 'Kimchi'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9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도서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은 1818년에 설립되어 남아프리카의 Cape Town과 Pretori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55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1%인 788건인 반면, 일본관련 레코드는 0.05%인 2,623건으로 3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43건, 북한 62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518건(65.7%), 역사·지리 분야가 102건(12.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레코드가 13건(1.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가 174건(22.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87건)>정치(78)>사회(5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116건(8.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48)>정치(40)>한국전쟁(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5건이며, 주제명은 'Taekwon do'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에 'Taekwondo'라는 키워드만 있는데도 주제명은 'Karate'로 기술한 것이 3건이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Tok Island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Japan, Sea of'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1.10 튀니지 국가도서관

튀니지 국가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Tunisie)은 1885년에 설립되어 튀니지의 Tunis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5%인 472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12%인 1,190건으로 2.5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94건, 북한 35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251건(53.2%), 역사·지리 분야가 99건(2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레코드가 4건(0.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사'가 56건(11.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45건)>경제(42)>문화(40)>...' 순으로 나



〈그림 5〉 튀니지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역사가 40건(11.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38)›문화(33)›사회(3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Corée’, 남한은 ‘Corée (République)’, 북한은 ‘Corée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9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대부분 ‘Tok to (Corée S.: îles)’로 표시하고 있지만 ‘Dokdo(Corée)’와 같이 표기된 것도 1건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2건이 검색되며, 1건은 〈그림 5〉와 같이 주제명이 ‘Japan, Sea of (North Pacific)’이라는 의미의 ‘Japon, Mer du (Pacifique Nord)’로 기술되어 있다. ‘태권도’, ‘김치’,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3.2 한국관련 레코드의 표기 특성

앞절에서 분석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주제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3.2.1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

한국관련 레코드와 관련하여 레코드 입력체계, 한국어 자료의 표기방식과 검색의 유무, 언어별 자료 구분에 있어 한국어의 포함 여부 등을 중심으로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분류법은 DDC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 국가도서관에서는 DDC와 LCC, 베트남 국가도서관에서는 DDC와 러시아의 BBK(Bibliotečno-Bibliografičeskaja Klassifikacija)를 병행하고 있다. 레코드를 입력하기 위한 목록법은 이란과 튀니지의 국가도서관에서는 UNIMARC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MARC 21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리랑카와 필리핀 국가도서관에서는 레코드를 화면에 표시할 때 ISBD 형식으로 표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도서관들은 일정하지 않다.

주제명의 경우 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나타내거나, 영어 및 자국어어를 병행하고 있다. 이때 영어 주제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LCSH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튀니지 국가도서관의 경우, LCSH 대신에 알파벳 자료는 프랑스 국가도서관의 RAMEAU(Répertoire d'Autorité Matière Encyclopedique et Alphabetique Unifie)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랍어 자료는 아랍어로 주제명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가도서관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주제명

표목표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어인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자국어 자료가 아닌 경우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지만 원어를 병기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어 자료도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원어를 병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검색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에서는 한국어 자료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한국어 검색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의 경우, 중국어 자료는 로마자 번자 표기와 함께 중국어 원어를 병기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의 언어별 구분에서 한국어를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은 이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국가도서관 등이다.

〈표 5〉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특성

국가도서관 \ 구분	분류법	목록법	주제명	로마자 번자표기	한국어 원어표기	한국어 자료 구분	한국어 검색유무
인도	DDC	MARC 21	영어(LCSH)	○	X	X	X
인도네시아	DDC	MARC 21, MODS, DC	인도네시아어	○	X	X	X
스리랑카	DDC	MARC 21, ISBD	영어(LCSH)	○	X	X	X
이란	DDC, LCC	UNIMARC	페르시아어, 영어	X	○	○	○
베트남	DDC, BBK	MARC 21	베트남어	X	○	○	○
필리핀	DDC	MARC 21, ISBD	영어(LCSH)	○	X	X	X
말레이시아	DDC	MARC 21	영어(LCSH)	○	X	○	X
태국	DDC	MARC 21	영어(LCSH), 태국어	○	X	○	X
남아공	DDC	MARC 21	영어(LCSH)	○	X	X	X
튀니지	DDC	UNIMARC	불어(RAMEAU), 아랍어	○	X	X	X

*2017년 10월 5일 기준임

3.2.2 주요 주제명의 표기 특성
 한국관련 주제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에 대해서 자료의 표제에 이들 용어가 어떻게 기술되고, 주제명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이들 용어는 각

<표 6> 주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주제명의 표기 현황

국가도서관	구분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인도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 kwon do	Kimchi	Dokdo:	East Sea	Yalu River	Mt. Paekdu
	주제명	Tae kwon do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Paektu Mountain (Korea)
인도네 시아	표제 키워드	Taekwondo		Dokdo	East Sea		
	주제명	Taekwondo: Taekwon-Do		Dokdo: Pulau Dokdo: Pulau Tok (Korea): Dokdo (Korea Selatan)	일반용어		
스리 랑가	표제 키워드	Taekwondo		Dokdo	East Sea		Mt. Paektu
	주제명	Karate			일반용어		일반용어
이란	표제 키워드	Taekwondo: تکواندو	Kimchi	Dokdo	East Sea		
	주제명	Taekwondo: تکواندو	Kimchi	جزیره (دک) کره جنوبی	دریای ژاپن		
베트남	표제 키워드	태권도: 跆拳道: Taekwondo: Tekwondo:	김치: Kimchi	독도: Dokdo	동해: East Sea		백두산
	주제명	Taekwondo	Kim chi: Kimchi	Đảo Dokdo: Đảo Tok: Đảo Dokdo/Takeshima	Biển đông		Núi Baekdu
필리핀	표제 키워드	Tae kwon do: Taekwondo	Kimchi	Dokdo	East Sea		
	주제명	Tae kwon do: Karate	Kimchi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말레이 시아	표제 키워드	Tae kwan do: Taekwondo: Tai quan dao: Tekkuvanto:	Kimchi	Dokdo: Tokdo: Tokto	East Sea		
	주제명	Tae kwon do: Karate	Kimchi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태국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 kwan do: เทควันโด	Kimchi	Dokdo: Tokdo	East Sea		
	주제명	Tae kwon do: เทควันโด	Kimchi	Tok Island (Korea): Tokdo Island (Korea): Dokdo	Japan, Sea of		
남아공	표제 키워드	Tae kwon do Taekwondo:		Dokdo	East Sea		
	주제명	Tae kwon do: Karate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튀니지	표제 키워드			Dokdo	East Sea		
	주제명			Tok to (Corée S.: îles): Dokdo (Corée)	Japon, Mer du (Pacifique Nord)		

*2017년 10월 5일 기준임(빈칸은 해당 자료 없음)

국가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며, 또한 지명의 경우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태권도’ 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주제명을 ‘Taekwondo’나 ‘Tae kwon do’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도서관의 레코드에는 표제 키워드에 ‘태권도’라는 의미의 키워드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에는 ‘Karate’만 표기하고 있는 레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김치’ 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표제 키워드 ‘Kimchi’로 검색이 되며, 주제명도 ‘Kimchi’로 표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국가도서관에서는 김치관련 레코드가 1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독도’ 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주제명을 ‘독도’ 또는 ‘독도섬’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Dokdo, Pulau Dokdo, Đảo Dokdo, Tok Island, Tokdo Island, Pulau Tok, Đảo Tok, Tok to (îles), جزيرة 등으로 나타내고, ‘한국’이나 ‘남한’이라는 의미의 지리 한정어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국가도서관에서는 지리 한정어 없이 Đảo Dokdo, Đảo Tok, Đảo Dokdo/Takeshima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의 경우 일부 레코드에만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가 표기되어 있다. 스리랑카 국가도서관에서는 주제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동해’ 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표제 키워드 ‘East Sea’로 검색이 되며, 주제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Japan, Sea of’와

‘Japon, Mer du’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튀니지 국가도서관은 ‘북태평양’이라는 지리 한정어를 부가하여 ‘Japon, Mer du (Pacifique Nord)’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국가도서관의 ‘동해’라는 의미의 ‘Biển đông’로 표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국가도서관은 ‘동해’라는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관련 레코드는 인도 국가도서관에서 ‘Yalu river’로 검색되며,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Mt. Paektu’와 ‘백두산’ 등과 같은 표제 키워드로 일부 국가도서관에서 몇몇 레코드가 검색되며, 주제명은 ‘Paektu Mountain (Korea)’와 ‘Núi Baekdu’ 등으로 나타나 있다.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

4. 결 론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10개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베트남과 필리핀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3,000건 미만이며, 스리랑카와 튀니지의 국가도서관은 5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자료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 국가도서관의 경우 한국관련 자료가 일본보다 2,000여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원어를 병기하지 않아 한국어 검색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에서는 한국어 자료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한국어 검색도 가능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5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베트남과 태국 국가도서관에서는 '소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결과,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지만, 4개 국가도서관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독도는 7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관련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한편 목록레코드의 조직은 전적으로 해당 국가도서관의 목록 규정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불합리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표기는 국가도서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한국학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수정을 요청하는 등 우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2] 김영귀, 1997.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44: 237-272.
- [3] 김정현, 2010.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47-169.
- [4] 김정현, 2011.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3): 141-162.
- [5] 김정현, 2013.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17-239.
- [6] 김정현, 2014. 유럽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191-212.
- [7] 김정현, 2015. 아태지역 주요 대학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301-323.

- [8] 김정현. 2016.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비교 분석: 유럽 및 남미지역 12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25.
- [9]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10] 문지현. 2012. 『中國分類主題詞表』와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121-141.
- [11] 문지현, 김정현. 2011a.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331-350.
- [12] 문지현, 김정현. 2011b.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47-267.
- [13] 윤정옥. 2001.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56(1): 30-55.
- [14] 윤정옥. 2012.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3-141.
- [15] 윤정옥. 2013.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5-23.
- [16] 정연경. 2010.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51-72.
- [17] Kim, Joy. 1989.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l*. Ann Arbor, MI: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18] Bibliothèque Nationale de Tunisie.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bnt.nat.tn/>>
- [19] National Library of India.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nationallibrary.gov.in/>>
- [20] National Library of Iran.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nlai.ir/>>
- [21]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nlsa.ac.za/>>
- [22] National Library of Sri Lanka.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natlib.lk/>>
- [23] National Library of Thailand.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nlt.go.th/>>
- [24]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online] [cited 2017. 10. 5.] <<http://web.nlp.gov.ph/>>
- [25] Perpustaka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pnri.go.id/>>
- [26] Perpustakaan Negara Malaysia. [online] [cited 2017. 10. 5.] <<http://www.pnm.gov.my/>>
- [27] 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Nam. [online] [cited 2017. 10. 5.] <<http://nlv.gov.v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0. *Subject Headings on Korea*.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2] Kim, Young-Kuy. 1997. "The Study of Selection and Scription of Korean-Related Subject Heading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usan women's university Journal*, 44: 237-272.
- [3] Kim, Jeong-Hyen. 2010.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47-169.
- [4] Kim, Jeong-Hyen.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PAC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41-162.
- [5] Kim, Jeong-Hyen.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n Border in the Subject Headings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217-239.
- [6] Kim, Jeong-Hyen.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 Related to Korea in the Major Europ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191-212.
- [7] Kim, Jeong-Hyen.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s Related to Korea in the Major Asia-Pacific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301-323.
- [8] Kim, Jeong-Hyen.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aloging Record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f the Main Developing Countries: Focused on 12 Europe and South America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1-25.
- [9] Kim, Jeong-Hyen and Moon, Ji-Hyu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49-68.
- [10] Moon, Ji-Hyun. 2012.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CCT and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121-141.
- [11] Moon, Ji-Hyun and Kim, Jeong-Hyen. 2011a.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Journal of Korea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331-350.
- [12] Moon, Ji-Hyun and Kim, Jeong-Hyen. 2011b.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47-267.
- [13] Yoon, Cheong-Ok. 2001. “The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LCSH.” *Doseogan*, 56(1): 30-55.
- [14] Yoon, Cheong-Ok. 2012.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the WorldCa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3-141.
- [15] Yoon, Cheong-Ok. 2013. “An Analysis on the Juvenile Books on Korea and Japan in the WorldCa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5-23.
- [16] Chung, Yeon Kyoung. 2010. “A Study o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as an Information Access Po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51-72.